

2023. 12. 3. 오후 1 시, In-Person & YouTube Online

블랙스버그 한인 교회 주일 예배 (성탄 축하 찬양 예배)

설교: 임동진

본문: 요한복음 John 1:9-14

제목: 빛으로 오신 하나님

설교 15 분, 5 페이지, p10-14

본문

(표준새번역) 1:9 그 빛이 세상에 오셨으니,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다.

(ESV) 1:9 The true light, which gives light to everyone, was coming into the world.

1:10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1:10 He was in the world, and the world was made through him, yet the world did not know him.

1:11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1:11 He came to his own, and his own people did not receive him.

1:12 그러나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1:12 But to all who did receive him,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1:13 그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욕망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1:13 who were born, not of blood nor of the will of the flesh nor of the will of man, but of God.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14 And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we have seen his glory, glory as of the only Son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Turn off 1, 2)

요한복음 1:9-13 절을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이야기(Story Telling)로 엮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계셨어요. 아빠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함께 이 세상을 만들기로 하셨어요. 아빠 하나님은 꼼꼼히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 하나님을
닮은 것을 만들어야지!”**

(Slide. 빛) 그리고는 빛을 만드셨어요.

Turn on 1,2

빛이 속속 다니며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었어요.

(Slide 1:10a) 아들 하나님을 닮은 빛을 해님에게도
넣어주고, 달님에게도 넣어주고, 별들에게도
주었어요. 세상은 온통 아들 하나님을 닮은 빛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아빠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의
빛을 사람의 마음에도 넣어 주셨어요. 반짝 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빛이 사람 속에 가득했어요.

1:10a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다(다)
1:10 He was in the world, and the world was made through him, ...

모든 별들과 해님과 나무와 꽃들과 사자와
공룡까지도 모두 행복했어요. 하지만 천사 루시엘은
아들 하나님이 싫었어요.

**“이런 건 싫어! 아들 하나님의 빛이 너무 밝아서 내
마음까지 다 보이잖아. 욕심도 낼 수 없고, 미워하는
마음도 숨길 수 없잖아!”**

루시엘은 어떻게 하면 아들 하나님의 빛을 없앨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음, 내가 아들 하나님의 빛을 없앨 수 없다면, 그 빛을
가려 버려야겠다! 나는 방법을 알고 있지! 히히히”**

루시엘의 마음을 안 뱀이 루시엘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같이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아빠 하나님이 너를 제일 사랑하신다면서? 그래서
아들 하나님 닮은 빛을 네 속에 넣어 주셨다면서?”**

루시엘과 뱀의 말에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예쁜 토끼를 만져주고 있었어요.

루시엘은과 뱀은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거 거짓말이다. 내가 아빠 하나님 옆에서 일해
봐서 아는데, 아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서 그 빛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너를 여기 에덴 동산에
잡아두려고 주신거야!**

사람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루시엘과 뱀에게로 다가왔어요. 뱀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이건 비밀인데, 네 속에 있는 그 빛을 확 빼내서 던져버리면 넌 자유하게 될 거야. 하나님도 그걸 아시지만 거짓말을 하셨어!”

루시엘은 사람의 표정을 살피며, 사람의 가슴을 톡 치며 이것을 빼야 한다고 눈짓으로 말했어요.

잠시 고민하던 사람은 오른 손을 가슴 속 깊이 집어 넣어 아빠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을 빼내어 나무 뒤로 던져 버렸어요.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거 봐, 그 빛을 빼내도 죽지 않잖아”

Turn off 1(발코니 패널)

잠시 뒤, 낮잠을 자고 일어난 사람은 눈을 비비며 말했어요.

“아직도 밤이야”

Turn off 2 (복도 패널)

(Slide '블랙') 다시 잠이 들었고, 한참을 자고 일어났는데 주변은 여전히 캄캄했어요. 아니 더 어두워진 것 같았어요. 사실은 그때부터 세상은 온통 어두워졌어요. 해님 안에도, 별 빛 안에도, 사람 마음 속에서도 아들 하나님의 빛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매일 매일 캄캄한 어둠만 남았어요.

사람이 사람을 낳고, 다시 아들을 낳고, 다시 딸을 낳으며 사람들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둠에서 태어나 어둠 속에서 죽었어요. 어둠 속에 오래 살다보니 눈이 익숙해져서 자기가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것도 잊어갔어요. 죄가 죄인줄도 모르고, 내가 싫어하면 악이 되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선이 되어 법을 만들어갔어요.

(Slide ‘별’) 옛날 이야기에나 나오는 빛의 이야기,
전설 속에 나오는 빛의 이야기도 점점 사라져 갔어요.
아무도 빛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한 빛이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 나타났어요.

별빛을 타고, 천사들의 노래 소리를 타고, 목동들의
초롱 초롱한 눈빛을 타고 그 옛날 그 빛이 나타났어요.

(Slide 1:9-10b)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비취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빛이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아유 눈부셔! 너무 밝아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 너무
밝으니까 다 보이잖아. 내 손에 묻은 먼지도 다
보이고, 내 마음에 숨겨 놓은 욕심도 다 보이고, 내
머리 속에 담아 두었던 나쁜 계획도 다 들춰지잖아!”**

1:9-10b 그 빛이 세상에 오셨으니,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시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1:9-10b The true light, which gives light to everyone, was coming into the world.
..., yet the world did not know him.

(Slide 1:11) 아들 하나님의 빛이 이 세상에 다시
찾아왔지만,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왔지만
아무도 그 빛을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1:11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1:11 He came to his own, and his own people did not receive him.

(Slide 1:14) 그 아들 하나님은 우리처럼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말을 하고 우리처럼 이 땅에 살아가셨어요. 그 사람이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14 And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we have seen his glory, glory as of the only Son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Slide '블랙') 지금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빛이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라요. 처음 사람이 마음 속에 있던 빛을 빼내어 버렸을 때, 온 세상을 '죄'가 먹구름처럼 덮어 버렸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Slide 1:13) 어떻게 하면 저 아들 하나님의 빛을 내 마음 속에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어도,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 빛을 받아들 순 없었어요.

어떡해, 어떡해!

하나님이 한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1:13 그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욕망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1:13 who were born, not of blood nor of the will of the flesh nor of the will of
man, but of God.

Turn on 2(복도 패널)

(Slide '빛') 이 세상에 다시 오신 그 빛을 '아들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그 사람 마음 속으로
들어가신데요! 그 빛이신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 사람 이름을 만드셨어요. 그 이름은
'예수'예요.

(Slide 1:12)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도 아빠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1:12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1:12 But to all who did receive him,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그 아들 하나님의 빛이
있나요? 여러분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기도: 하나님 앞에서

- 빛이신 예수님께서서 내 앞길을 비추어 내 인생을 인도하소서
- 우리가(나, 자녀, 가족, 친구, 동료) 무엇을 해야 할 지 모를
때,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 옳고 그름을 구별하기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소서

소그룹에서 나눌 질문들

(2023.12.3. 빛으로 오신 하나님, 요한복음 1:9-14)

1. 이야기를 들려주듯 읽어 주시거나,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이야기한 사람과 들은 사람의 전체적인 느낌을 나누어 봅시다.
2. 이야기 내용 중,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 닿았는지 나누어 봅시다(구체적으로)
3.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 자기 나라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배척했던 장면에서(10, 11 절) 주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 까요? 나의 경험을 비추어 표현해 봅시다.
4. 현대의 성탄절의 사람들 문화, 교회 행사, 성경 메시지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